

# 정시 경쟁률 큰 폭 상승... 서울대 4.13 대 1, 연대 4.76 대 1

서울대, 1037명 모집에 4285명 지원 작년 3.82대 1 등 2년째 경쟁률 상승  
연대, 1659명 모집에 7890명 몰려 인문계 모집 165명, 자연계 80명 ↑

〈서울대·연세대 정시모집 마감 경쟁률 비교〉

/자료=진학사

대학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정원	지원자	경쟁률	정원	지원자	경쟁률
서울대	798	3,049	3.82	1,037	4,285	4.13
연세대(서울)	1,491	5,860	3.93	1,659	7,890	4.76



2022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린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3일 오후 대다수 대학이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가운데, 지난 1일 다른 대학에 비해 일찍 마감한 서울대와 연세대 등 두 대학 지원율이 전년도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여전히 정시 마감일 막판에 이른바 '눈치 작전'이 치열했다. 특히 연세대는 마감 하루 전 1대 1에 미치지 않던 정시 경쟁률이 하루 만에 5대 1 가까이 치솟았다.

대학 정시모집 인원 증가에 따라 수험생들의 기대 심리가 최상위권 대학 원서 접수로 이어진 게 경쟁률 상승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서울대, 지원자 증가율 '인문'자연계 열'

서울대는 총 1037명 모집에 4285명이 지원해 4.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년도 3.82대 1보다 지원율이 상승했다. 선발인원이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지원인원도 큰 폭으로 늘어나 2년 연속 정시 경쟁률이 상승했다.

올해 서울대 정시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인문 계열 56명, 자연 계열은 129명 증가했고, 지원 인원은 인문 계열

276명, 자연 계열 491명 늘었다.

서울대는 인문계열 지원 증가율이 자연계열 증가율보다 높았다. 인문계열의 경우 농경제사회학부가 13명 모집에 134명이 지원해 10.3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뒤이어 ▲사회학과(7.30:1) ▲영어교육과(5.63:1) ▲지리학과(5.38:1) 등의 경쟁률이 높았다. 경영대학은 3.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연계열은 물리천문학부·천문학전공이 5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해 5.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식품·동물생명공학부(5.38:1) ▲항공우주공학(5.33:1) 등의 지원율이 높았다. 의

예과와 약학계열은 각각 3.13대 1, 3.95대 1의 지원율을 보였다. 화학교육과가 12명 지원에 30명이 지원해 2.5대 1의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처음으로 정시 선발을 한 모집단위였던 자유전공학부와 언론정보학과, 윤리교육과, 통계학과, 약학계열 중에서는 인문·자연 모두 지원 가능한 자유전공학부가 5.92대 1로 지원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유형Ⅲ로 지원 자격이 변동되면서 기존 '제2외국어/한문 필수 응시' 조건과 '과학Ⅱ 과목 필

수 응시' 조건이 모두 폐지됨에 따라 이른바 과학탐구 'I+I' 선택자들이 수학 표준점수 유리함을 활용하기 위해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원 인원만 보면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 경영대학, 전기정보공학부, 농경제사회학부, 경제학부, 기계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등이 100명이 넘었다.

## ◆연세대는 '인문'자연계열'...막판 눈치작전으로 경쟁률 점프

연세대는 총 1659명 모집에 지원해 4.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3.93대 1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지원율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마감 하루 전인 토요일 발표에서 1대 1이 넘는 모집 단위가 많지 않을 정도로 극도의 눈치작전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최종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세대의 올해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인문계열은 165명, 자연계열은 80명 증가했고, 지원 인원은 인문계열 1396명, 자연계열 1220명 증가했다.

인문계열에서는 전년도 지원율이 낮았던 독어독문학과와 지원율이 7대 1로 가장 높았고, ▲중어중문학과(5.89:1) ▲불어불문학과(5.72:1) 등이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경영학과는 5.12대 1의 지원율을 보였다.

이처럼 독문, 중문, 불문학과 등의 지원율이 높은 이유는, 연세대로 교차지원을 통해 상향지원한 학생들이 선호도

와 입시 결과가 다소 낮을 것으로 생각한 어문계열학과에 대거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세대는 서울대와 달리 자연계열 지원 증가율이 인문계열 증가율보다 높았다. 자연계열의 경우 지구시스템학과(8.85:1), 인공지능학과(8.17:1) 등의 지원율이 높았고, 의예과는 4.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설된 약학과도 5.81대 1로 다소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1학년도에 비해 정시선발인원을 크게 늘린 서울대와 연세대 두 대학에 지원자도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경쟁률이 대폭 높아진 이유는 학령인구가 다소 늘어나기도 했고, 모집인원 증가와 약학과 등의 신설모집단위에서 선발하는 등 합격에 대한 수험생들의 기대 심리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더불어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지원에 따른 상향 지원 학생의 유입에서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병진 소장도 "연세대의 지원 인원은 지난해 2100명 선에서 올해 3000명 중반으로 크게 상승했다"며 "수능 시험이 어려웠던 영향으로 동점자가 줄다 보니 자신의 위치가 비교적 잘 드러날 뿐 아니라 동점자가 많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치의 모호함에 따른 망설임 없이 지원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산재 예방시설 설치 사업장 최대 10억 용자

고용부, 올 예산 3563억 마련  
연 금리 1.5%... 영세업자 대상

방호장치 등 산업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영세 사업장에 정부가 올해 최대 10억원까지 용자를 해 준다.

3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2년 '산재 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35억원 증가한 3563억원이다.

공단은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나 기구, 방호장치 등 산재 예방시설 투자 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용자 지원한다. 설비 등 투자

비용에 대해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고,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다.

지원 대상은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또는 고용부로부터 승인받아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등이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직업체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한다.

다만,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이나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정부 지원 정책 자금을 100억원을 넘게 받은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공단은 올해부터 용자금과 함께 안전

투자혁신사업 보조금도 지원한다.

안전 투자혁신사업은 노후화된 뿌리 공정이나 사고사망 위험이 큰 3대 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한도에서 교체 비용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업종은 기계 기구·금속·비금속 광물 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 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등 최근 10년간 끼임·추락 사고 사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이다.

산재 예방시설 용자금을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해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지난 2021년 12월 27일 이기안 인하대 창업지원단장(왼쪽)과 김면복 인천지식재산센터 센터장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하대

## 인천대-인천상공회의소 기술창업 활성화 업무협약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21년 12월 27일 창업지원단 회의실에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예비·초기창업자의 기술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운영 ▲기술창업 및 IP 관련 정부출연과제를 추진

하는 데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인천지식산업센터는 특허와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또한 지식재산기반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이현진 기자

## 세종대LINC+사업단, NHN과 웹툰 제작

세종대학교는 LINC+사업단 글로벌 CGI애니메이션 트랙이 NHN과 웹툰제작 산학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NHN은 SBS 인기 드라마인 '옥탑방 왕세자'를 웹툰에 맞게 각색을 진행하는 등 제작 전체 프로듀싱을 담당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세종대 글로벌 CGI애니메이션트랙을 이수하고 있는 7명의 만화애니메이션전공 학생들과 김민정 산학협력중점교수가 협업체 NHN이 소장한 3편의 기존 TV 및 웹드라마를 각색해 웹툰으로 리메이크한

다. 각 작품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제작 기간을 거친 뒤 NHN의 웹툰 플랫폼에 정식 연재될 예정이다.

이번 산학프로젝트는 세종대 LINC+사업단과 NHN의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으로부터 시작했다. 세종대 LINC+사업단은 실제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미러형 스튜디오 시스템을 도입해 작가, PD, 채색, 배경 등 분야별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고 분업화하는 등 '세종대학교 웹툰제작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제작에 참여한다. /이현진 기자

## 동국대 입학처 고등학생 드림캠프 개최

동국대학교 입학처는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창작과 창업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을 위한 창작·창업 진로캠프 '드림 캠프'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드림 캠프는 전국 고등학교 1, 2학년(예비 고2, 3학년)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캠프를 통해 진행된다. 창작·창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및 창의융합 사고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마련됐다. /이현진 기자

## 경희사이버대 '사이버대 발전 기여' 교육부장관 표창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사이버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21년도 초·중등 e러닝분야, 사이버대학 발전 유공 기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유공 표창은 e러닝 분야에서 국정과제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추천받아 공개검증과 공적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서 수여하는 표창이다. /이현진 기자

경희사이버대는 2021년 개교 20주년, 대학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축적된 콘텐츠 개발 노하우와 온라인 수업 운영 경험을 통해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20년 교육부 주관 '사이버대학 인증·역량 진단'에서 A등급을 받은 4개 대학 중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